

K-종합상사, '자원 무기화' 선대응... 니켈 등 광물 확보 총력

글로벌 '자원 무기화' 양상 페루 등 공급망 다변화 모색 "지속가능한 확보 중요 과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 무기화 양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의 무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종합상사는 이차전지 원료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1일 에너지전환위원회(ET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차전지 주요 재료인 구리와 니켈의 수요 대비 공급이 약 10~15%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추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가 필수적인 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STX가 생산 및 판매권을 확보한 아프리카 모잠비크 카울라 광산 모습 /STX

이에 따라 이차전지 원자재 확보 능력은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물은 이차전지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 자원무기화로 인해 원자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원무기화란 특정 지역에 편재돼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희토류, 흑연, 리튬 등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수출을 통제하며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광물 생산에서의 우위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사는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STX는 페루 리튬광산의 지분과 리튬 정광의 운송·판매 오프테이크(생산물 우선 확보권)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리튬의 제련과 정련을 위해 국내외 배터리 제조업체와 공장 설립도 협의함으로써 리튬의 채굴과 제련, 정련, 운송, 판매에 걸친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전략이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판매사 IBT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 이차전지 사업의 통합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 9만톤의 흑연 공급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흑연 외에도 폐배터리, 리튬 등 이차전지 원료 소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향후 10년간

동박원료 60만톤을 확보하며 글로벌 하이엔드 동박 시장 선점에 나섰다. 동박은 이차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두께 10μ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하의 얇은 구리박이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생산된 니켈은 미국과 한국에 양극재 공장을 둔 법인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양극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리튬 투자에도 나서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상사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에 직면하긴 했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이차전지 광물의 지속가능한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C&C, '디지털 탄소여권 플랫폼' 만든다

롯데알미늄-조일알미늄 사업계약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예정

SKC&C가 롯데알미늄(주)·조일알미늄과 제품 생산 전반의 종합 탄소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알미늄과 조일알미늄은 알루미늄 박 생산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터리 규제 대상이다.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디지털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하는 의무다.

SKC&C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구축해 3단계에 걸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철강·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조



SK 서린사옥

정제도(CBAM)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적용하고, EU의 추가 탄소 관리 규제 대응에도 적극 활용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 배출 전과정평가(LCA) 대응을 동시에 지원하는 탄소 배출량 관리 플랫폼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SK C&C는 글래스돔과 함께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스코프3 전과정평가(LCA)를 자동화된 관리 체계로 지원한다. 국제 표준인 ISO14067도 수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도 갖췄다.

롯데알미늄(주) 이승민 ESG전략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탄소 관련 EU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각 공정별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탄소 배출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사이버 솔루션 'BSI'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량 입증

삼성전자가 만든 새로운 상업용 사이버 솔루션이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영국왕실표준협회(BSI)에서 삼성VXT로 국제정보보호 관리 체계 표준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삼성 VXT는 차세대 디지털 사이버 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클라우드(Cloud Native) 기반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다. 삼성 VXT를 활용하면 매장 내 제품 홍보, 할인 이벤트, 광고 영상, 환영 메시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제작·관리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처음 론칭했다.

삼성 VXT는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 경영 시스템 인증(ISO/IEC 27701:2019)'과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IEC 27001:2022)'을 동시에

받았다. 삼성 VXT 솔루션을 활용한 사이버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 받은 것이다.

'개인정보 경영시스템인증(ISO 27701)'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위험평가 등 114개 세부 통제 항목과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수탁자로서의 필수항목 49개로 구성된 글로벌 표준 체계의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인증한다.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ISO 27001)'은 정보보호정책, 통신·운영, 접근통제, 정보보호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관리 4개 관리영역, 93개 세부 항목에 대해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평가해 인증한다.

삼성 VXT 솔루션은 변경된 인증 범위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추가했다. /김재용 기자

포스코 근무복 품질·기능 개선

포스코가 30년만에 근무복을 새롭게 바꿨다.

포스코는 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근무복에 시인성이 높은 오렌지 색상을 중심으로 반사띠를 적용하고 원단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개선해 활동성과 작업효율성을 높였다고 1일 밝혔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1일 부터 변경된 근무복을 착용했다. 포스코가 이전 스카이블루 색상인 근무복을 도입한 시기는 1993년으로 이번 교체는 30년 만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케미칼, 美 의료 패키징 시장 공략

현지 전시회 참여... 기업 협력 강화

SK케미칼이 의료 패키징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케미칼은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의료용품 전시회(MD&M)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MD&M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및 제조 산업을 위한 주요 전시회다.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모여 의료기기 디자인·제조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공유한다.

SK케미칼은 전시회에서 기존에 마스크 월드, 의료용품 보관용기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패키징에 적용해왔던 코폴리에스터 뿐만 아니라, 순환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소재인 SKYPET

CR, 에코트리아 CR까지 함께 선보였다.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미국 의료용 패키징 기업인 팩커(Pacur)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의료기기 업계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를 공략하기로 했다. 팩커와의 협업을 기점으로 의료 패키징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응수 SK케미칼 그린소재사업본부장은 "팩커는 미국 의료 패키징 분야에서 유명한 업계 선도 업체로 이번 협업은 의료 패키징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 패키징 분야에 재활용 소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UV 살균' 공기청정기 출시

LG전자가 공기청정기에 살균 기능을 더했다.

LG전자는 'UV살균 공기청정'을 더한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와 에어로타워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UV 살균 공기청정기 기능은 자외선(UVC)로 흡입한 공기에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없애 실내 공기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제품 하단 중앙부에 UVC LED 램프를 탑재해 토출하는 공기 자체를 살균함으로써 위생을 대폭 강화했다.

LG전자는 극초미세먼지와 생활냄새의 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5대 유해가스를 걸러 공기속 부유 세균과 부유 바이러스를 각각 99.9%, 99.8%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LG 퓨리케어 공기살균청정기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 UV살균'도 360° 공기청정기 신제품과 동일하게 UV살균된 청정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고객은 추울 땀 온풍, 더울 땀 선풍으로 설정해 깨끗한 공기를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김재용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